

2019 Seoul Open City University

# 서울자유시민대학 체임버 오케스트라

Seoul Open City University Chamber Orchestra

.....

## 제 3 회 내 인생 오케스트라 ‘인생오케’



### "모차르트, 차이코프스키, 겨울 쎄레나데"

조지연, 김효진, 송은영, 신윤희, 이영주, 황은혜,  
김동일, 김성훈, 박문숙, 박향지, 이나은, 한정진, 김자영, 정재훈,  
신연희, 어성옥, 이진숙, 임지영, 김민영, 김학봉, 박영란, 최경옥,  
김혜선, 박소인, 정문주, 유주환

2019년 12월 5일 목요일 7:30PM

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시민홀

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, 공연문의 02-739-2752



서울자유시민대학



# PROGRAM

**Wolfgang Amadeus Mozart (1756-1791)**

Serenade no.13 in G major, k.525 <Eine kleine Nachtmusik>

**모차르트, 현악 세레나데 사장조 k.525 <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>**

1악장, Allegro (즐거운 마음으로)

\*현악과 목관을 위한 편곡

**Pyotr Ilyich Tchaikovsky (1840-1893)**

Romeo and Juliet (Fantasy Overture)

**차이코프스키, 환상서곡 <로미오와 줄리엣>**

\*현악과 목관을 위한 편곡

## PROFILE

제1바이올린 : 조지연(리더), 김효진, 송은영, 신윤희, 이영주, 황은혜

제2바이올린 : 김동일, 김성훈, 박문숙, 박향지, 이나은, 한정진

비올라 : 김자영, 정재훈

첼로 : 신연희, 어성옥, 이진숙, 임지영

플루트 : 김민영, 김학봉, 박영란, 최경옥      클라리넷 : 김혜선, 박소인, 정문주

지휘, 해설 : 유주환

유주환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작곡, 이론, 역사, 지휘를 공부했고 그 문어발식 공부 취향 덕에 삶이 다양해졌다. “뭘 하는 분이냐?” 누가 물으면, “이것저것 합니다.” 그는 대답하기도 한다. 소싯적 열정으로 상도 몇 받았지만 모두 운 좋던 과거사로 돌리고 이제는 회고조차 지루하다. 2014년 어느 방송사는,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라며 그를 다큐멘터리 소재로 삼기도 했지만 혹시 내가 사무착오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, 의심하고 있다. 오히려 화면에 담긴 자신에 좌절하고, 곰 같은 신수에서 벗어나고자 운동도 결심했지만, 라면과 다이어트의 공생이 어렵다는 깨달음이 그를 체념에 이르게 한다. 곡 쓰고, 발표하고, 지휘하고, 강연하고, 글 쓰느라 하루가 짧지만 틈만 나면 놀고 싶다. 지금 즐겁게 잘 노는 것이 지금의 목표이기 때문이다. 요리와 살림에 소질이 있음을 최근 알게 된 그는 호박된장찌개를 잘 끓인다는 칭찬에 설렌다. 유주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‘서자시’ 지금이며,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다, 라고 그는 생각한다, 실천한다.